

# 제3차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 한국축산 제2의 도약계기 마련 —



**국내** 농업분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학술행사인 제3차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연합회(AAAP) 총회가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워커히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히 베풀어져 전세계 축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외의 학계 및 업계관계자 1,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참가국 27개국, 3편의 특별논문, 특별강연 26편, 심포지움 논문 343편 등이 발표된 학술행사 이외에, 환영리셉션, 장관초청 만찬회, 대회만찬회, 송별파티, 산업시찰 등의 사교행사, 축산박람회,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유감없이 과시하여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외교 차원에서 큰 몫을 해냈다.

5월 6일 개회식에서 황인성 농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 20년간 농업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전제하고, 「제3차 AAAP 서울대회를 계기로 단위당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기술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들의 수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대회를 통해 亞·太축산국가의 발전방향을 폭넓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며,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3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91년도까지는 5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세아·대양주 뿐만 아니라 세계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축산학회장 커닝햄의(E. P. Cumingham) 축사와 김동암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오봉국 명예대회장의 각국대표 소개, 김강식 축산시험장장의 한국축산소개 등의 순서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대회에 들어갔다.

대회기간 동안 오전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초빙되어 「동물성단백질의 중요성과 초지의 역할」 「가축유전 및 육종」 「가축번식학의 발달」 「물소사육의 발달」 「저질조사료의 이용방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심포지움은 △가축생산을 위한 복합영농 △가축의 건강증진방안 △축산식품과 미생물 △산지초지개량방안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오후에는 11개 분과로 나누어 영양, 번식, 육종, 가축생산, 질병, 축산물가공, 사료자원, 환경, 유통, 초지관리 등의 학술발표회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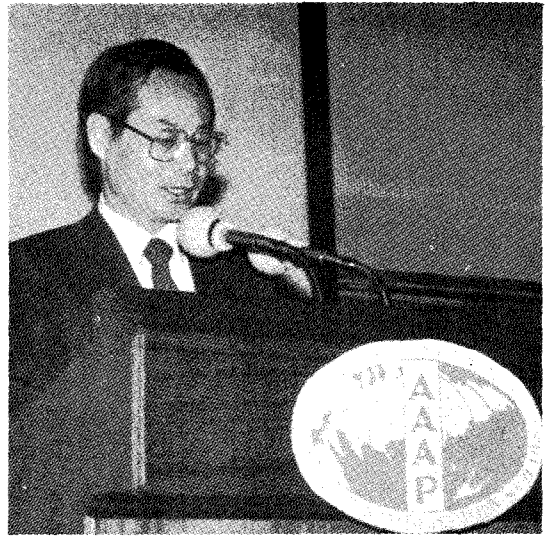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역은 국내의 학자들과 초빙된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전공별로 나누어 분담하였다.

대회기간중 5월 6일, 7일, 9일에는 포스터발표가 있었으며, 대회 전기간중 한국고유의 가축품종(한우, 진도개, 염소, 제주마) 소개와 한국의 축산을 자세히 소개한 학술전시회(축산분야 국내의 서적전시회 포함)와 산업전시회인 축산박람회(여의도 한국기계공업전시관, 농수축산신보추첨)가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참관하였고, 대회중 10개 코스에 의한 산업시찰 및 관광을 실시, 32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한국 축산현장을 시찰해 우리 축산발전 현황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사교행사로는 조직위원장 초청 환영리셉션(5일, 230명 참석), 농수산부장관 환영만찬(6일, 640명 참석), 조직위원회주관 대회만찬(7일, 220명 참석), AAAP 회장 초청 송별파티(10일, 700여명 참석) 등 다채로운 파티가 진행되었다.

대회가 끝난후 조직위원회에서는 외국참가자들에게 대회후 관광을 주선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외교의 계기가 되었다.

AAAP 총회에서는 제 4차 대회를 오는 1987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 아세아·태평양 뿐만 아니라 세계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한인규 회장

년 2월 1일에서 6일까지 6일간 뉴질랜드 해밀턴시에서 △축산물생산의 새로운 발전 △자원의 효율적이용 △축산물의 품질개선 △기술의 응용 등의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5차 대회는 자유중국에서 1990년에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0일 AAAP 회장 환송파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중 축산분야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위기가 국제행사를 효과적으로 치루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예로서 공항에서 워커킬을 오는데 10시 이후에는 공항버스, 택시 등이 운행되지 않았으며 바가지요금 수수, 국제회의장 환등기작동 애로 등) 국내 축산인들의 학술, 진행 등록 등 모든 부문에서 물심양면으로 훌륭하게 협조무드를 조성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 축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의 축산과학자들이 한국의 축산의 굳건한 뿌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 축산의 저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기술수입에만 의존하던 우리 축산업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제 2의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斗>